2023년 경기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KGU 경기대학교

2023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문항 1] 가의 소설에서 보이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립하는 두 입장에 대하여 다의 ㉠'생태학적 추론'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시오.(700±50자)

가

[앞부분 줄거리]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병국'은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근처 공장주들은 그런 병국을 못마땅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국의 아버지인 '나'의 앞으로 공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에 가까운 난동을 피운다. 병국이 당국에 '근처 공장에서 몰래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 든 내 손이 떨렸다. 방안으로 들어가 돋보기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 성창 비료 서교 공장은 연간 사십 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 잡이에 출어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 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관계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고등학교 국어』

나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 소나무숲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산판(山坂)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怒氣)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신영복,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고등학교 국어』

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진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 간 뒤에야 이 나무들을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 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 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중략)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나무 근처에서는 땔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 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무화과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뻗은 무화과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무화과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왕가리 마타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고등학교 독서』

[문항 2] 가에 나타난 동상의 의미를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나에 나타난 초상의 의미를 라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700 ± 50자)

가

미국 시카고의 메릴린 먼로 동상은 상업적이고 성차별적인 전시물로 논란이 많았다. 광고, 영화, 공연 등에서 성적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성 상품화라고 한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을 상품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며,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상품화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 상품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미국의 메릴린 먼로 동상>

나

2009년에 처음 발행된 5만 원권에 첫 여성 인물인 신사임당의 초상을 넣었다. 율곡 이이를 키운 어머니로서 세계 최초로 모자지간이 지폐의 인물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 지폐 모델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강력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한국의 신사임당 초상>

다

전근대 사회는 지배층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이 사회의 주체로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화 초기에 '충실한 어머니이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르치기 위해 여성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리에 눈 뜨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는 부친의 가부장적 권위에 저항하고 강요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등장하였다. 중국에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악습인 전족을 거부하고 남성들과 함께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라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와 같은 남녀 관계가 유지되고, 상식과 인간 정신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누구도 남녀의 본성에 대해 안다거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사회에서 여성 없이 남성만 살았거나 반대로 남성 없이 여성만 살았다면, 또는 지금처럼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본성에 내재한 정신적・도덕적 차이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의도 및 해설

[언어영역]

<출제의도>

이 문제는 경제적 발전과 자연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라고 하는 비교적 익숙한 주제를 담고 있는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유와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인간의 이익을 강조하는 태도와 그와는 반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물을 보호하려는 관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밝히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의의를 서술하는 것이 본 문제에서 핵심적인 논제라 할 수 있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김원일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으로, 여기에서는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성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자연에 위해한 물질이나 폐수를 함부로 방류하는 공장 사람들의 이기심은, '병국'과 같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미친놈'으로 취급하거나, '한갓 새나 물고기'로 상징되는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자원의 일부로만 간주하도록 만든다.

한편, 제시문 (나)는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의 일부분으로, 여기에서 저자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간주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을 비판한다. 제시문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직 경제적인 논리에서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가)의 공장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합리성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 심지어 인간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자연과 인간, 경제와 보존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 두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가령, 제시문 (나)에서 엿보이는 글쓴이의 태도는, 자연(나무)을 인간과 동격의 존재로 보거나, 더 나아가 자연을 신성하며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의 활동을 '고작, 소비하는 활동'으로만 치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태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다)에서 언급한 생태학적 추론 혹은 생태학적 관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케냐의 원주민들이 보여주는 자연을 신성시하는 태도 안에는 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돕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놓여있다.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태도나, 혹은 지나치게 자연을 신성화하는 태도처럼 극단적인 이분법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출제의도 및 해설

[사회영역]

<출제의도>

이 문항은 여성의 본성이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의 의미를 파악하여, 인물 동상과 초상이 상징하는 바를 분석하고 이것이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추론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미국 시카고에 세워진 메릴린 먼로의 동상이 성 상품화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5만 원권 화폐에 들어간 신사임당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글이다. 먼로와 신사임당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하나는 부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여성들이 권리에 눈을 뜨고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회의 주체로 주목받게 되었다는 글이다. 이를 통해 (가)의 먼로 동상은 전통적인 여성관과는 거리가 먼, 자유롭고 당당한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제시문 (라)는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나 그에 따른 적합한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신사임당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여성에게만 적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훌륭한 여성상으로 지폐 모델로 선정된 점은 진정한 여권 신장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가)와 (나)가 보여주는 여성상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